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과 인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노시훈*

목 차

1. 서론
2. 사회연결망분석방법
3. 이명박정부
4. 박근혜정부
5. 문재인정부
6.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이 정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각 정권 2년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텍스트와 유씨아이넷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데 있다. 2009년 이명박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다문화 정책을 답습한 것인데, 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고 영화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서 정책과 인식에 거리가 있고 다양한 주제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2014년 박근혜정부는 문화다양성 정책에 있어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주민과 내국인의 교류', '소수문화 계층으로 정책 대상 확대'와 같은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사회에서는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았지만 교류 필요성을 포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고 주제도 그것으로 집중되어 이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문재인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수문화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하도록 하는 방향을 지향하는데, 사회에서 이러한 방향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어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소수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문화다양성이 사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정책, 문화다양성 인식, 사회연결망분석, 의미연결망분석

1. 서론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전 과정에는 3개의 변곡점이 있다. 첫 번째는 2005년 한미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가 논의되면서 문화적 예외론이 발생한 시점이다. 두 번째는 2010년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면서 다문화 정책을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세 번째는 2014년 문화다양성 법률을 제정하면서 소수에 대한 문화권 보장과 사회갈등 해소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영역을 확대·구체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 전환점들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전 단계를 2005년~2009년, 2010년~2013년, 2014년~현재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¹⁾

그러나 위와 같은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변곡점과 단계 구분에는 각각 문제점이 있다. 먼저, 스크린쿼터 제도와 관련하여 문화적 예외론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이하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과정에

1) 김면, 『문화다양성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73~81면.

서 프랑스를 비롯한 협약 추진 세력이 자유무역에서 문화상품의 예외를 주장하기 위해 상징적 정책의 예로 제시한 것으로²⁾, 우리나라 정부가 문화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다. 스크린쿼터 보호 운동을 펼치면서 예외론과 협약 채택을 적극 지지한 것은 우리나라 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이었으며, 우리 정부는 2005년 협약 채택을 지지하였으나 2006년 1월 26일 한미 FTA 협상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함으로써 예외론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한 입장을 보여준다. 2005년이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時點)이기는 하나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시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³⁾이기 때문에 이 해가 시작점이 아닌 ‘변곡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세 단계가 새롭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시작된 것은 이것이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포함된 2013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⁴⁾ 이 해부터 시작되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구분에서는 오히려 이 연도가 두 번째 단계가 끝나는 해로 제시되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가 없었으나⁵⁾ 박근혜정부는 2013년 국정과제를 최종 발표하면서 ‘문화다양성 증진

2) 한건수,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2015, 165면.

3) 같은 글, 188면.

4) ‘문화다양성 정책’이라는 용어가 『문화정책백서』나 『문화예술정책백서』(2010년부터 이름이 바뀜)의 목차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이명박정부에 해당되는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에서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정책이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정책과 동일한 것으로만 언급되고 있어[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서울: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249~261면] 본격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노무현정부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2004년 6월 8일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과 문화교류·협력 확대'를 국정기조 3('문화융성'), 추진전략 8('문화참여 확대')에 속하는 109번째 과제로 언급하였다. 2014년도에 있었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 법률」) 제정도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에서 시작하여 2014년을 포함하는 단계 구분이 필요하다.

2014년~현재의 세 번째 단계도 보다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7년 6월 제6차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정부 간 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위원국(2017년~2021년)으로 선출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생겼고, 같은 해 정책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문화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개인의 자율성 보장', '사회의 창의성 확산'과 함께 3대 방향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에 속하는 의제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정책이 국제적 관점에 맞춰 정교화하기 시작한 이 무렵을 시점(始點)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 구분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볼 때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변화 과정은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2005년부터 정권별로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앞에 든 세 개의 변곡점은 각각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정권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바뀌거나 유지되는가를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변화를 정권별로 분석하고 각 정권의 실제적인 정책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각 정권의 정책이 사업 등을 통해 적절히 시행되어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알기 위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관련 자료

증진'을 '창의한국'의 5번째 기본방향('문화와 세계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에 속하는 25번째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제와 관련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을 국가 간 문화교류에만 한정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수집이 2009년부터 가능해서 연구 대상 시기를 2009년부터 2018년까지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과 인식 변화의 분석에 문헌 분석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사용할 것인데, 특히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들과 그 관계들의 형태와 의미”⁶⁾에 초점을 맞추는 이 분석방법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담론 분석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고서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이 정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찰하고, 텍스톰(Textom)과 유씨아이넷(UCINET)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몇 차례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인데, 본고의 연구 결과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의 예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연결망분석방법

1) 자료 수집

우리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과 처리에는 빅데이터 처리 솔루션인 텍스톰(<http://www.textom.co.kr>)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텍스톰의 채널에는 포털사이트로 네이버(블로그, 카페, 지식IN, 뉴스, 웹문서, 학술정보전체), 다음(블로그, 카페, 팁, 뉴스, 웹문서), 구글[뉴스, 구글페

6) Stanley Wasserman and Katherine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3.

이스북(구글에서 수집하는 페이스북 문서)]이 있고, 사회연결망서비스로 바이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이 있는데, 다음의 자료는 정확한 단어를 인용부호로 묶어 검색할 수 없고 사회연결망서비스들의 자료는 검색 기간 설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포털사이트로는 네이버와 구글, 사회연결망서비스로는 페이스북(구글에서 수집)에서 수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2014년, 2018년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위의 포털사이트와 사회연결망서비스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2009년, 2014년, 2018년을 검색 대상으로 한 것은 보통 정부의 국정 방향이 집권 2년차에 들어 뚜렷해지는데, 이 세 해는 각각 이명박정부(2008. 2. 25~2013. 2. 24), 박근혜정부(2013. 2. 25~2017. 3. 10), 문재인정부(2017. 5. 10~)의 집권 2년 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2003. 2. 25~2008. 2. 24)의 집권 2년 차인 2004년은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전이기도 하거니와 텍스트를 통한 자료 수집이 2009년부터 가능해서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외된 기간이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문화다양성”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검색한 것은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화다양성’이라는 단어 없이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단어들만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도 수집되어 자료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검색한 결과 얻은 원문 자료와 그것을 정제한 자료의 연도별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정제 자료는 원문 자료에서 핵심적인 주제어를 추출하기 위해 분석품사를 명사로 하여 ‘정제/형태소분석’을 하고 완전히 중복되는 것들을 제외한 결과이다.

〈표 1〉 연도별 원문 자료와 정제 자료의 수

| 연도 \ 자료 | 원문 자료 | | 정제 자료 |
|---------|--------|---|--------|
| 2009 | 1,560개 | 구글 검색 기사 8개, 네이버 블로그 글 420개, 네이버 검색 기사 610개, 네이버 카페 글 408개, 네이버 지식IN 114개 | 1,226개 |
| 2014 | 2,210개 | 구글 검색 기사 57개, 구글페이스북 글 3개, 네이버 블로그 글 910개, 네이버 검색 기사 937개, 네이버 카페 글 240개, 네이버 지식IN 63개 | 2,021개 |
| 2018 | 2,672개 | 구글 검색 기사 137개, 구글페이스북 글 38개, 네이버 블로그 글 1,000개, 네이버 검색 기사 902개, 네이버 카페 글 545개, 네이버 지식IN 50개 | 2,553개 |

2. 분석 방법

위와 같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자료들 안에서 다시 띄어쓰기를 고치고 중복된 단어를 제외하는 등의 처리를 하고, 주제어와 빈도수 등을 추출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정보를 분류하는 등의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과정을 거쳐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진행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정보를 키워드의 수준이 아니라 Context의 수준의 의미를 찾아내는 프로세스”로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특정 주제와 연관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발전”⁷⁾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정형 정

7) 정근하,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 연구』(서울 : 한국과

보수집 → 정보처리 → 정보추출 → 정보분석의 과정을 거친다.

의미연결망분석은 사회연결망분석의 일종이지만 “행위자[actor] 대신 메시지의 구성요소인 단어들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분석”⁸⁾하는 것으로 “특정 이슈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제’라는 큰 숲을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나무(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했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⁹⁾ 차민경은 이 분석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 의제를 조망할 수 있는지와 그것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개별 노드가 상호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화살표로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제 설정을 위해 어떠한 노드를 중심으로 이슈를 구축하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형성된 키워드 간 연결 구조, 즉 특정 이슈에 대한 전체 의미연결망 구조는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숲을 구성하며 어떠한 나무가 주로 사용되고 나무 간 관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조직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로써 의미연결망 분석은 더욱 입체적으로 개별 단어 간의 관계와 전체 구조를 밝힐 수 있으며, 수용자에게 어떠한 구조로 현실 인식에 영향을 제공하는지 그 모습을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¹⁰⁾

이러한 의미연결망분석을 위해 정제 자료의 주제어의 빈도 분석과 연결 중심성 분석, 소시오메트릭스를 통한 연결망 분석과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하였다. 중심성(centrality)은 행위자가 가진 중심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데, 그 가운데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다른 액터들과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액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치적 우위를 갖는

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39~42면.

8) 최윤정·권상희,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1), 2014, 251면.

9) 차민경, 「국내 언론에 나타난 '예술경영' 관련 이슈의 의미연결망 분석 :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일간지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9(2), 2015, 175면.

10) 같은 글, 175~176면.

다”¹¹⁾고 보고 행위자의 영향력을 연결정도로 측정하는 중심성 개념이다. 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을 분석하고 이를 그 빈도와 비교해보면 순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많이 언급되는 단어와 실제로 영향력 있는 단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소시오매트릭스(sociomatrix)는 그래프에 포함된 모든 수치적 정보를 나타나게 하여 훨씬 방대한 수학적 분석을 하기 위해 만드는데, 그 형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개수의 행과 열로 이루어진 정방형 매트릭스(square matrix)¹²⁾이다. 주제어의 빈도 목록에서 ‘등’, ‘의’, ‘것’, ‘수’와 같이 의미가 없거나 불명확한 단어를 제거하고 적당한 순위까지의 단어들로 매트릭스를 만들어 이를 유씨아넷을 통해 노드(node, point, vertex)와 라인(line, arc, edge)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인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다시 나타내면 보다 정확한 연결망 분석이 가능해진다. 등위성(equivalence)은 “두 액터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액터들과 동일한 또는 매우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¹³⁾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은 “두 액터가 다른 모든 액터에 대해 완전히 동일한 연결관계를”¹⁴⁾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등위성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이 있는데, 이 방법은 “가공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다 결집된 형태로 변환하여 모호한 군집을 얻는다.”¹⁵⁾ 이 군집들을 살펴보면 정제 자료의 단어들이 형성하는 주요 주제군을 식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유씨아넷을 이용하여 CONCOR 분석 결과를 연결망 분석 결과와 함께 시각화하였다.

11) 광기영, 『소셜네트워크분석』, 제2판(서울 : 청람, 2017), 184면.

12) 같은 책, 40면.

13) 같은 책, 334면.

14) 같은 책, 336면.

15) John Scott, *Social Network Analysis : A Handbook*, second edition (London : SAGE, 2000), p.131.

3. 이명박정부

1) 정책과 인식의 거리

이명박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은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백서는 그 정책을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2006년 노무현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작된 다문화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 내 소수문화, 세대문화, 지역문화, 다문화 등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문화예술교류 및 소통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¹⁶⁾인 ‘무지개다리사업’이 시작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진실보하지만¹⁷⁾, 무지개다리사업이 초기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간 다양성에 치중”¹⁸⁾하였기 때문에 이때에도 문화다양성 정책이 다문화 담론 내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2009년에도 문화다양성 정책이 이와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적절히 시행되어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제의 빈도 분석과 연결중심성 분석을 통해 당시 사회의 관련 인식을 살펴 보아야 한다.

〈표 2〉 2009년 자료의 주제어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
| 1 | 문화다양성 | 825 | 35 | 필요 | 51 | 69 | 국제 | 33 |

16) 김면, 앞의 책, 77면.

17)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서울: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249~263면.

18) 한건수, 앞의 글, 193면.

| | | | | | | | | |
|----|----------------|-----|----|---------------|----|-----|--------------|----|
| 2 | 증진 | 174 | 36 | 사진 | 51 | 70 | 비준 | 33 |
| 3 | 세계 | 170 | 37 | 교육 | 50 | 71 | 시대 | 33 |
| 4 | 문화 | 169 | 38 | 사람 | 49 | 72 | 교수 | 32 |
| 5 | 정부 | 155 | 39 | 문화유산 | 47 | 73 | 생각 | 31 |
| 6 | 기여 | 148 | 40 | 스크린쿼터 | 46 | 74 | 도시 | 31 |
| 7 | 인류 | 148 | 41 | 세계문화유산 | 45 | 75 | 2009년 | 30 |
| 8 | 보호 | 139 | 42 | 삶 | 44 | 76 | 외국인 | 30 |
| 9 | 창의 | 127 | 43 | 활동 | 43 | 77 | 위기 | 30 |
| 10 | 강강술래 | 123 | 44 | 가치 | 43 | 78 | 논의 | 30 |
| 11 | 원천 | 119 | 45 | 지원 | 42 | 79 | 의미 | 29 |
| 12 | 답변 | 117 | 46 | 문화재 | 42 | 80 | 종교 | 29 |
| 13 | 인류문화 | 116 | 47 | 지역 | 41 | 81 | 전시회 | 28 |
| 14 | 유네스코 | 114 | 48 | 채택 | 41 | 82 | 정책 | 28 |
| 15 | 한국 | 114 | 49 | 확대 | 41 | 83 | 각국 | 28 |
| 16 | 유산 | 112 | 50 | 주제 | 40 | 84 | 축소 | 28 |
| 17 | 증명 | 108 | 51 | 나라 | 39 | 85 | 강조 | 28 |
| 18 | 적극 | 106 | 52 | 개최 | 39 | 86 | 다문화사회 | 28 |
| 19 | 해당 | 106 | 53 | 일 | 38 | 87 | 추진 | 28 |
| 20 | 사회 | 105 | 54 | 시작 | 38 | 88 | 부탁 | 28 |
| 21 | 다양성 | 96 | 55 | 국가 | 38 | 89 | 작품 | 27 |
| 22 | 보호조치 | 92 | 56 | 서울 | 38 | 90 | 방송 | 27 |
| 23 | 우리나라 | 78 | 57 | 글로벌 | 37 | 91 | 여성 | 27 |
| 24 | 이해 | 78 | 58 | 문제 | 37 | 92 | 인권 | 27 |
| 25 | 아시아 | 76 | 59 | 진행 | 37 | 93 | 한글 | 27 |
| 26 | 말 | 76 | 60 | 보존 | 36 | 94 | 마련 | 26 |
| 27 | 문화다양성협약 | 71 | 61 | 기획 | 36 | 95 | 인식 | 26 |
| 28 | 다양 | 71 | 62 | 내공 | 35 | 96 | 소통 | 26 |
| 29 | 인정 | 64 | 63 | 프로그램 | 35 | 97 | 날 | 26 |
| 30 | 영화 | 64 | 64 | 미국 | 35 | 98 | 현재 | 26 |
| 31 | 발전 | 53 | 65 | 미래 | 34 | 99 | 환경 | 26 |
| 32 | 지속 | 52 | 66 | 운동 | 34 | 100 | 정치 | 25 |
| 33 | 관련 | 51 | 67 | 심은하 | 34 | | | |
| 34 | 존중 | 51 | 68 | 등재 | 33 | | | |

2009년의 정제 자료로부터 7,436개의 주제어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의미가 없거나 불명확한 단어를 제거하고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총 100개의 주제어를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우선 상위권에 위치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세계문화유산’(41위)과 관련된 단어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들은 네이버 지식IN에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을 알려달라고 ‘부탁’(88위)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12위)으로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68위)된 ‘강강술래’(10위)를 들면서 제시한 설명에 포함된 ‘인류문화’(13위), ‘원천’(11위), ‘인류’(7위), ‘창의’(9위), ‘증명’(17위), ‘기여’(6위), ‘해당’(19위), ‘유산’(16위), ‘보호’(8위), ‘증진’(2위), ‘보호조치’(22위), ‘정부’(5위), ‘적극’(18위) 등인데, 세계문화유산이 문화다양성과 관련이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문화유산’(47위)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여서 이 단어들은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제외될 필요가 있다. 이 렇게 하였을 때 10위권에 속하는 단어는 ‘문화다양성’(1위), ‘세계’(3위), ‘문화’(4위), ‘유네스코’(14위), ‘한국’(15위), ‘사회’(20위), ‘다양성’(21위), ‘우리나라’(23위), ‘이해’(24위), ‘아시아’(25위)이다. 이 단어들 가운데 ‘한국’(114번)과 ‘우리나라’(78번)를 같은 뜻으로 보고 그 빈도수를 더하면 192번으로 2위가 되기 때문에 2009년에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우리나라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이해가 당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주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27위)인데, 이에 대한 빈번한 언급은 그 ‘비준’(70위)을 한 해 앞둔 상황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언급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앞서 언급한 이명박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다문화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관련된 단어인 ‘외국인’과 ‘다문화사회’가 각각 76위와 86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는, 2006년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문화다양성 차원에서의 문화산업 예외 논쟁이 한국에서 급속도로 약화”¹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30위), ‘스크린쿼터’(40위), ‘심은하’(67위)²⁰⁾와 같은 관련 단어가 보다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

다. 그런데 연결중심성 분석을 해보면 아래의 <표 3>과 같이 주제어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2009년 자료의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 순위 | 단어 | 연결 중심성 | 순위 | 단어 | 연결 중심성 | 순위 | 단어 | 연결 중심성 |
|----|----------------|----------|----|--------------|----------|----|---------------|----------|
| 1 | 문화다양성 | 0.089185 | 35 | 개최 | 0.007264 | 69 | 청소년 | 0.005515 |
| 2 | 세계 | 0.027845 | 36 | 서울 | 0.007264 | 70 | 작품 | 0.005381 |
| 3 | 문화 | 0.026634 | 37 | 생각 | 0.007129 | 71 | 방송 | 0.005246 |
| 4 | 한국 | 0.021254 | 38 | 교수 | 0.007129 | 72 | 현재 | 0.005246 |
| 5 | 사회 | 0.018429 | 39 | 존중 | 0.006995 | 73 | 관심 | 0.005246 |
| 6 | 유네스코 | 0.015873 | 40 | 증진 | 0.006995 | 74 | 시대 | 0.005246 |
| 7 | 답변 | 0.014393 | 41 | 나라 | 0.006995 | 75 | 논의 | 0.005112 |
| 8 | 다양성 | 0.014259 | 42 | 국제 | 0.00686 | 76 | 국내 | 0.005112 |
| 9 | 말 | 0.012914 | 43 | 미래 | 0.00686 | 77 | 내용 | 0.005112 |
| 10 | 아시아 | 0.011838 | 44 | 내공 | 0.00686 | 78 | 글 | 0.005112 |
| 11 | 이해 | 0.011838 | 45 | 진행 | 0.006726 | 79 | 역할 | 0.005112 |
| 12 | 정부 | 0.011568 | 46 | 스크린쿼터 | 0.006726 | 80 | 등재 | 0.004977 |
| 13 | 필요 | 0.010627 | 47 | 확대 | 0.006591 | 81 | 포럼 | 0.004977 |
| 14 | 관련 | 0.010627 | 48 | 프로그램 | 0.006591 | 82 | 노력 | 0.004977 |
| 15 | 영화 | 0.010492 | 49 | 외국인 | 0.006591 | 83 | 환경 | 0.004977 |
| 16 | 사진 | 0.010492 | 50 | 채택 | 0.006457 | 84 | 공연 | 0.004977 |
| 17 | 문화다양성협약 | 0.010223 | 51 | 문화재 | 0.006322 | 85 | 인식 | 0.004843 |
| 18 | 교육 | 0.009685 | 52 | 의미 | 0.006188 | 86 | 마련 | 0.004843 |
| 19 | 다양 | 0.009685 | 53 | 문화유산 | 0.006188 | 87 | 기획 | 0.004843 |
| 20 | 사람 | 0.009282 | 54 | 여성 | 0.006053 | 88 | 세계문화유산 | 0.004843 |
| 21 | 인정 | 0.009147 | 55 | 인류 | 0.005919 | 89 | 역사 | 0.0048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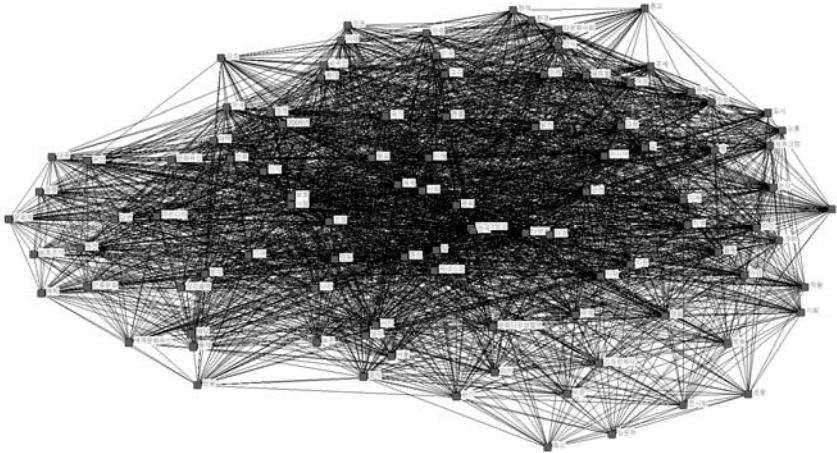
19) 같은 글, 190면.

20) '심은하'를 영화 관련 단어로 보는 것은 그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서울 관훈동 복촌 미술관에서 열린 '스크린쿼터 기금마련전(展)'에 자신이 그린 수묵화 한 점을 기부하였는데, 이를 문화다양성과 연관시켜 보도한 기사들이 원문 자료에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 | | | | | | | | |
|----|------|----------|----|-------|----------|-----|-------|----------|
| 22 | 우리나라 | 0.008878 | 56 | 강조 | 0.005919 | 90 | 인권 | 0.004843 |
| 23 | 일 | 0.008475 | 57 | 추진 | 0.005784 | 91 | 시장 | 0.004708 |
| 24 | 발전 | 0.008475 | 58 | 이야기 | 0.005784 | 92 | 다문화가정 | 0.004708 |
| 25 | 문제 | 0.00834 | 59 | 소통 | 0.005784 | 93 | 정치 | 0.004708 |
| 26 | 가치 | 0.008071 | 60 | 정책 | 0.005784 | 94 | 이유 | 0.004574 |
| 27 | 활동 | 0.007937 | 61 | 보호 | 0.00565 | 95 | 부탁 | 0.004574 |
| 28 | 지원 | 0.007937 | 62 | 다문화사회 | 0.00565 | 96 | 중심 | 0.004574 |
| 29 | 지역 | 0.007802 | 63 | 글로벌 | 0.005515 | 97 | 유지 | 0.004574 |
| 30 | 미국 | 0.007667 | 64 | 기여 | 0.005515 | 98 | 참여 | 0.004574 |
| 31 | 시작 | 0.007667 | 65 | 소개 | 0.005515 | 99 | 최근 | 0.004574 |
| 32 | 국가 | 0.007667 | 66 | 지속 | 0.005515 | 100 | 정도 | 0.004439 |
| 33 | 삶 | 0.007398 | 67 | 주제 | 0.005515 | | | |
| 34 | 도시 | 0.007264 | 68 | 2009년 | 0.005515 | | | |

<표 3>을 <표 2>와 비교해보면 ‘세계문화유산’(88위)과 관련된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순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답변’(7위), ‘말’(9위), ‘아시아’(10위)를 제외한 10위권 단어들이 ‘세계문화유산’ 관련 단어들을 제외한 <표 2>의 실제 10위권 단어들과 일치하며, ‘한국’(4위)과 ‘우리나라’(22위)를 더하면 2위가 되기 때문에 연결중심성 분석을 통해 보더라도 2009년에 문화다양성 담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 우리나라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이해가 역시 당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 협약』, 영화,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어들의 순위가 훨씬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와 관련된 단어로 ‘다문화가정’이 새로 출현해서 다른 관련 단어들과 더하면 실제로 다문화 관련 주제어의 중심적 위치가 언급 빈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다문화 정책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다문화 관련 주제어의 빈도와 연결중심성의 순위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정책의 추진과 사회의 인식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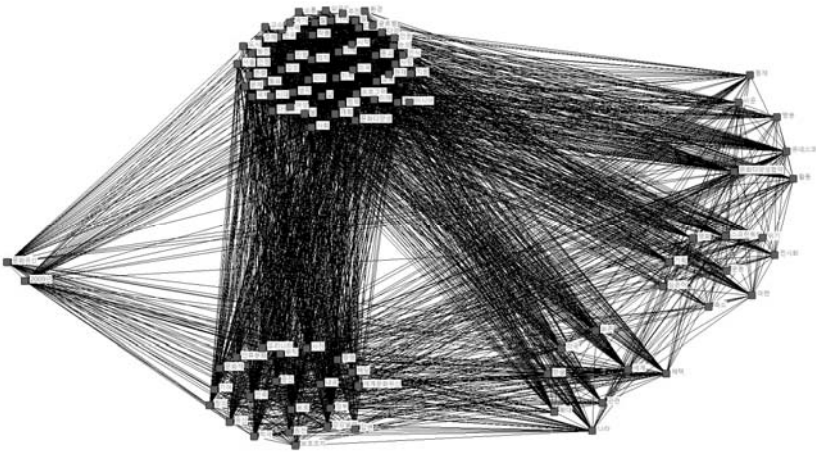
2) 다양한 주제의 공존



〈그림 1〉 2009년 자료의 연결망 분석 결과

〈그림 1〉과 같이 2009년 자료의 연결망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보면 당시에 ‘문화다양성’과 가장 인접한 단어는 ‘한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2>와 <표 3>의 빈도 분석과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와 같은 것이어서 2009년에 문화다양성 담론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문화’, ‘다양성’, ‘다양’, ‘말’, ‘유네스코’, ‘사회’, ‘증진’, ‘세계’ 등의 단어가 근거리에 위치해있어 문화의 다양성이 세계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증진되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별로 보면 그림의 하단 오른쪽에 『문화다양성 협약』(‘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과 영화(‘스크린쿼터’, ‘영화’)의 주제어가 중심의 ‘문화다양성’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쉽게 연결되는 반면, 다문화(‘다문화사회’)의 주제어는 최상단 오른쪽에 자리해 꽤 거리가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제가 가까운 것은 다음해인 2010년에 있을 협약의 국회 비준이 임박하였음을 알려 준다. 영화의 주제가 다문화의 주제보다 가까이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화다양성이 다문화보다는 영화를 통해 인식되고 있음을 뜻한다. 세계문화유산의 주제어는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어 그것이 문화다양성과의 관련이 떨어짐을 알려준다.



〈그림 2〉 2009년 자료의 CONCOR 분석 결과

2009년 자료의 CONCOR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 2〉를 살펴보면 2개의 중심 군집과 4개의 주변 군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단의 중심 군집은 ‘문화다양성’ ‘정책’에 따라 ‘개최’된 행사나 시행된 ‘프로그램’ 중심의 군집이어서 ‘문화다양성 정책·프로그램’ 군집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단의 중심 군집은 ‘강강술래’를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 관련 단어들이 모여 있어 ‘세계문화유산’ 군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주변 군집으로는 왼쪽의 ‘문화유산’ 군집과 오른쪽의 ‘한글’, ‘영화’, ‘문화다양성협약’ 군집이 있다. 특히 ‘한글’은 <표 2>의 빈도 분석에서 93위를 차지하였고 <표 3>의 연결중심성 분석에서 순위 안에 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그

림 2>에서 하나의 군집을 만들고 있어 2009년의 문화다양성 담론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군집들의 크기를 고려해볼 때 2009년 문화다양성을 둘러싼 담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군집은 ‘문화다양성 정책·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외국인’,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관련 개념의 혼재 속에 다문화 행사·프로그램이 문화다양성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로 볼 때 ‘문화유산’ 군집은 별 의미가 없으나 ‘영화’, ‘문화다양성협약’, ‘한글’이 문화다양성과 관련해 작게나마 주변 군집을 형성해서 2009년의 문화다양성 담론은 다양한 주제들이 공존하는 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박근혜정부

1) 다문화 정책의 본격화

박근혜정부는 2013년 국정과제를 최종 발표하면서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를 109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 ‘국제문화교류 증진 기반 조성’, ‘한국문화원 등 해외 문화교류 거점기관 확충 및 한국문화 홍보 강화’, ‘세종학당 확대로 해외 한국어교육 기반 강화’²¹⁾를 들고 있어 이 과제만을 두고 보면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창의한국’의 25번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문화교류를 강조한 노무현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2014년 『문화예술정책백서』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 박근혜정부의 “문화다양성정책은 기존에 실시되던 다문화가족 대상의 정책을 포함하여 (...) 세계적 추세 및 국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상

21)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 202면.

호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보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²⁾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위주의 정책이 아닌 다양한 이주민의 고유문화를 인정하면서 이주민과 내국인과의 상호 문화교류를 도모하는 사회통합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여러 문화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²³⁾ 하는 것이다. 또한 2014년 「문화다양성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책의 대상을 이주민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노인, 탈북자 등 다양한 소수문화 계층으로 확대하여 그 계층의 표현 증진 및 문화적 접근성 기회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유엔이 지정한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과 문화다양성주간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해보면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기존의 다문화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이주민과 내국인의 교류’, ‘소수문화 계층으로 정책 대상 확대’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관련 분석을 통해 당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 2014년 자료의 주제어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
| 1 | 문화다양성 | 1479 | 35 | 발전 | 79 | 69 | 기획 | 55 |
| 2 | 문화 | 327 | 36 | 체험 | 79 | 70 | 필요 | 55 |
| 3 | 세계 | 200 | 37 | 소통 | 78 | 71 | 사람 | 54 |
| 4 | 이해 | 188 | 38 | 문화체육관광부 | 78 | 72 | 예술 | 54 |
| 5 | 확산 | 177 | 39 | 기여 | 77 | 73 | 적극 | 53 |

22)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서울: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110면.

2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서울: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137~138면.

| | | | | | | | | |
|----|----------------|-----|----|--------------|----|-----|-------------|----|
| 6 | 2014 | 176 | 40 | 다문화가족 | 77 | 74 | 인식 | 52 |
| 7 | 지역 | 169 | 41 | 어린이 | 75 | 75 | 시작 | 52 |
| 8 | 다양 | 167 | 42 | 다문화가정 | 75 | 76 | 일환 | 52 |
| 9 | 사회 | 166 | 43 | 대표 | 73 | 77 | 활동 | 51 |
| 10 | 증진 | 160 | 44 | 아시아 | 72 | 78 | 우리나라 | 50 |
| 11 | 개최 | 158 | 45 | 날 | 71 | 79 | 기자 | 50 |
| 12 | 다문화 | 146 | 46 | 참여 | 71 | 80 | 제주 | 50 |
| 13 | 존중 | 140 | 47 | 인정 | 67 | 81 | 5월 | 50 |
| 14 | 유네스코 | 134 | 48 | 축제 | 66 | 82 | 관련 | 49 |
| 15 | 한국 | 133 | 49 | 주제 | 66 | 83 | 의미 | 49 |
| 16 | 다양성 | 132 | 50 | 마련 | 64 | 84 | 교수 | 49 |
| 17 | 지원 | 131 | 51 | 창의 | 64 | 85 | 관계자 | 48 |
| 18 | 진행 | 130 | 52 | 농악 | 63 | 86 | 포럼 | 48 |
| 19 | 교육 | 122 | 53 | 주관 | 63 | 8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47 |
| 20 | 시 | 119 | 54 | 말 | 62 | 88 | 추진 | 47 |
| 21 | 무지개다리사업 | 119 | 55 | 등재 | 61 | 89 | 조성 | 46 |
| 22 | 프로그램 | 118 | 56 | 나라 | 61 | 90 | 활용 | 46 |
| 23 | 사업 | 100 | 57 | 이주민 | 61 | 91 | 학생 | 46 |
| 24 | 보호 | 97 | 58 | 정부 | 61 | 92 | 답변 | 46 |
| 25 | 행사 | 97 | 59 | 주최 | 61 | 93 | 한편 | 45 |
| 26 | 운영 | 95 | 60 | 문화예술 | 59 | 94 | 일본 | 45 |
| 27 | 가치 | 91 | 61 | 개발 | 59 | 95 | 각국 | 45 |
| 28 | 영화 | 89 | 62 | 공동체 | 59 | 96 | 글로벌 | 45 |
| 29 | 인류 | 87 | 63 | 도시 | 58 | 97 | 발표 | 45 |
| 30 | 서울 | 87 | 64 | 시민 | 58 | 98 | 이야기 | 45 |
| 31 | 공연 | 85 | 65 | 일 | 56 | 99 | 생각 | 44 |
| 32 | 청소년 | 81 | 66 | 제공 | 56 | 100 | 국회 | 44 |
| 33 | 확대 | 81 | 67 | 기회 | 56 | | | |
| 34 | 전국 | 80 | 68 | 지속 | 55 | | | |

<표 4>는 2014년의 정제 자료로부터 9,723개의 주제어를 추출하고 이 가운데 의미가 없거나 불명확한 단어를 제거한 뒤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총 100개의 주제어를 추린 것이다. 여기서 10위까지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표

2>에서 실제로 2위를 차지한 ‘한국’(‘우리나라’ 포함)이 5위권으로 약간 순위가 떨어진 반면 순위에 없었던 ‘확산’과 47위였던 ‘지역’이 5위와 7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정책이 문화다양성의 지역으로의 확산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사회에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의 또 다른 특징은 2009년과 비교하여 다문화 관련 단어의 순위가 확연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문화’(12위), ‘무지개다리사업’(21위), ‘소통’(37위), ‘다문화가족’(40위), ‘다문화가정’(42위), ‘이주민’(57위)이 그러한 단어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무지개다리사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다문화 관련 사업의 실행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뜻하므로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96위였던 ‘소통’이 37위를 차지한 것은 이주민과 내국인의 교류를 통한 이해와 소통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의 ‘외국인’을 대체하는 단어인 ‘이주민’의 출현도 다문화 정책이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유입 외국인으로 확대되어 내국인과의 소통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라는 단어가 목록에 없으나 ‘영화’(28위)가 <표 2>(30위)와 비슷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문화다양성 담론에서 이 장르가 꾸준히 회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있으나 ‘문화다양성협약’이 목록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협약이 2010년 국회에서 비준된 이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 법률」 제정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문화다양성 법(률)」이 목록에 못 들어간 것은 제정의 과정과 의미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법률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을 이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문화 계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청소년’(32위) 외에 ‘여성’, ‘노인’, ‘탈북자’ 등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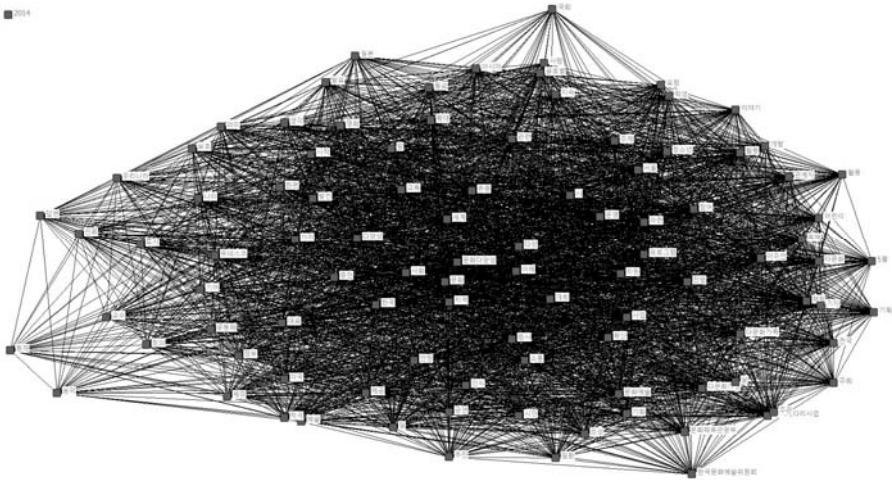
〈표 5〉 2014년 자료의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 순위 | 단어 | 연결 중심성 | 순위 | 단어 | 연결 중심성 | 순위 | 단어 | 연결 중심성 |
|----|--------------|----------|----|--------------|----------|----|----------------|----------|
| 1 | 문화다양성 | 0.093705 | 35 | 필요 | 0.00864 | 69 | 날 | 0.006583 |
| 2 | 문화 | 0.032504 | 36 | 이주민 | 0.008537 | 70 | 외국인 | 0.00648 |
| 3 | 세계 | 0.022938 | 37 | 활동 | 0.008537 | 71 | 문화체육관광부 | 0.00648 |
| 4 | 개척 | 0.018618 | 38 | 청소년 | 0.008537 | 72 | 의미 | 0.006377 |
| 5 | 사회 | 0.017795 | 39 | 전국 | 0.008434 | 73 | 생각 | 0.006377 |
| 6 | 지역 | 0.017589 | 40 | 증진 | 0.008332 | 74 | 미국 | 0.006274 |
| 7 | 다양성 | 0.015532 | 41 | 축제 | 0.008332 | 75 | 주최 | 0.006274 |
| 8 | 한국 | 0.015326 | 42 | 도시 | 0.008126 | 76 | 삶 | 0.006172 |
| 9 | 이해 | 0.01512 | 43 | 체험 | 0.008126 | 77 | 일본 | 0.006069 |
| 10 | 교육 | 0.015017 | 44 | 어린이 | 0.008126 | 78 | 추진 | 0.006069 |
| 11 | 다양 | 0.014709 | 45 | 나라 | 0.008126 | 79 | 글로벌 | 0.006069 |
| 12 | 프로그램 | 0.014195 | 46 | 다문화가족 | 0.008023 | 80 | 주관 | 0.006069 |
| 13 | 지원 | 0.013783 | 47 | 아시아 | 0.00792 | 81 | 국가 | 0.006069 |
| 14 | 진행 | 0.01368 | 48 | 기자 | 0.00792 | 82 | 발표 | 0.005966 |
| 15 | 영화 | 0.013269 | 49 | 말 | 0.007817 | 83 | 대상 | 0.005966 |
| 16 | 유네스코 | 0.012857 | 50 | 발전 | 0.007817 | 84 | 기여 | 0.005863 |
| 17 | 운영 | 0.012857 | 51 | 시민 | 0.007714 | 85 | 관계자 | 0.005863 |
| 18 | 시 | 0.012755 | 52 | 이야기 | 0.007714 | 86 | 힘 | 0.005863 |
| 19 | 행사 | 0.011829 | 53 | 예술 | 0.007714 | 87 | 관심 | 0.005863 |
| 20 | 사업 | 0.010389 | 54 | 마련 | 0.007714 | 88 | 5월 | 0.005863 |
| 21 | 대표 | 0.010286 | 55 | 우리나라 | 0.007612 | 89 | 활용 | 0.005863 |
| 22 | 확산 | 0.010183 | 56 | 관련 | 0.007406 | 90 | 무지개다리사업 | 0.005863 |
| 23 | 공연 | 0.009875 | 57 | 문화예술 | 0.007303 | 91 | 안내 | 0.00576 |
| 24 | 참여 | 0.009566 | 58 | 확대 | 0.0072 | 92 | 2014 | 0.00576 |
| 25 | 2014년 | 0.00936 | 59 | 다문화 | 0.0072 | 93 | 국제 | 0.005657 |
| 26 | 존중 | 0.009257 | 60 | 개발 | 0.007097 | 94 | 인류 | 0.005657 |
| 27 | 서울 | 0.009257 | 61 | 소개 | 0.007097 | 95 | 선정 | 0.005657 |
| 28 | 가치 | 0.009052 | 62 | 제주 | 0.006994 | 96 | 프랑스 | 0.005657 |
| 29 | 일 | 0.008949 | 63 | 교수 | 0.006994 | 97 | 등재 | 0.005554 |
| 30 | 소통 | 0.008949 | 64 | 시대 | 0.006892 | 98 | 학교 | 0.005554 |
| 31 | 다문화가정 | 0.008846 | 65 | 제공 | 0.006892 | 99 | 책 | 0.005554 |

| | | | | | | | | |
|----|----|----------|----|----|----------|-----|-----|----------|
| 32 | 주제 | 0.008846 | 66 | 학생 | 0.006789 | 100 | 공모전 | 0.005554 |
| 33 | 시작 | 0.008743 | 67 | 인정 | 0.006686 | | | |
| 34 | 사람 | 0.008743 | 68 | 정책 | 0.006686 | | | |

<표 5>의 단어들을 10위까지 살펴보면 <표 4>에서 5위권이었던 ‘한국’ (‘우리나라’ 포함)이 3위권에 위치해있고 다른 단어들도 앞의 표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서 이 순위까지는 빈도 분석과 연결중심성 분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 단어들의 순위는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무지개다리사업’은 순위가 21위에서 90위로 추락하여 언급의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 담론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기존 시각이 유지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7계단 순위가 상승한 ‘소통’(30위)이 ‘이주민과 내국인의 교류’라는 정책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표 4>에 없었던 ‘외국인’(70위)이 ‘이주민’(36위)과 함께 등장하고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기존의 시각과 바뀐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38위)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소수 문화 계층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정책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표 3>에 비해서는 다문화 주제어들이 훨씬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박근혜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폭넓게 인식된 다문화 정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영화’의 순위(15위)는 오히려 더 높아져서 문화다양성 담론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위상이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협약’과 ‘문화다양성 법(률)’은 <표 5>에도 여전히 등장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표 4>와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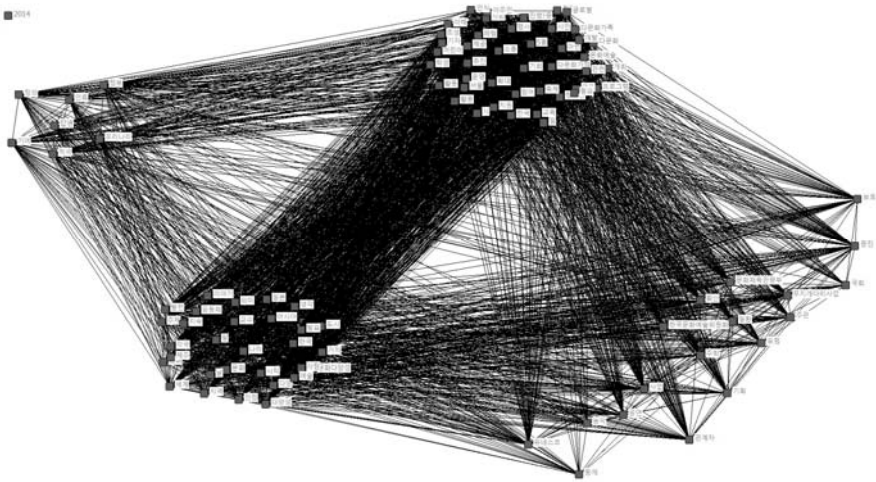
2) 주제의 소멸과 출현



〈그림 3〉 2014년 자료의 연결망 분석 결과

2014년 자료의 연결망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 3>을 보면 2009년과 달리 ‘문화다양성’과 가장 인접한 단어는 ‘한국’이 아닌 ‘문화’이고, ‘세계’와 ‘지역’이 ‘한국’보다 ‘문화다양성’에 더 가까이 위치해있어 문화다양성 담론이 국가 중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들 외에 ‘문화’, ‘다양성’, ‘다양’, ‘사회’, ‘증진’ 등이 2009년과 같이 ‘문화다양성’ 주변에 위치하였으나 ‘말’, ‘유네스코’ 등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문화다양성 담론에서 언어와 「문화다양성 협약」이 더 이상 중심적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과 달리 ‘이해’, ‘행사’, ‘개최’와 같은 단어들이 ‘문화다양성’ 주위에 나타나는데, 이는 담론의 변화를 의미한다. ‘증진’보다 ‘이해’가 중심에 더 가까운 것은 문화다양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 때문이며, ‘행사’와 ‘개최’가 중심에 가까운 것은 예전에 비해 2014년에 문화다양성 관련 행사가 많이 열렸음을 뜻한다. 주제별 위치를 살펴보면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제는 <그림 3>의 연결망에서 사라졌고, 영화, 다문화, 세계문화유산의 주제는 중심에서 떨어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후자의 주제들은 2009년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특히 다문화의 주제가 2009년 처럼 중심에서 먼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처럼 다문화의 주제가 중요하기는 하나 문화다양성과 결합되는 것으로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림 4〉 2014년 자료의 CONCOR 분석 결과

2014년 자료의 CONCOR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 4>에서처럼 2개의 중심 군집과 2개의 주변 군집을 볼 수 있다. 상단의 중심 군집은 다문화 관련 단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다문화’ 군집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단의 중심 군집은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단어들 모여 있어 ‘아시아 문화다양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주변 군집으로는 왼쪽의 ‘세계문화유산’ 군집과 오른쪽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군집이 있다. 상·하단의 중심 군집은 유사한 크기를 보이고 있어서 2014년 문화다

양성 담론에서 ‘다문화’와 ‘아시아 문화다양성’이 비슷하게 중심 주제군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표 4>와 <표 5>에서 ‘아시아’(44위, 47위)와 ‘일본’(94위, 77위)이 출현하기는 하나 순위가 높지 않고 ‘교류’ 등 다른 관련 단어들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외라고 할 수 있으나 어쨌든 새롭게 출현하여 강력한 무리를 이룬 주제군이다. 이 주제군의 출현은 문화다양성 담론이 ‘특정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같은 수준으로 “국가 간 다양성”²⁴⁾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주제군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는 실제로는 ‘국제문화정책’으로 다루어져서²⁵⁾ 정책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범주를 벗어난다. ‘세계문화유산’ 군집은 2009년과 비교해보면 중심 군집에서 주변 군집이 될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어 더 이상 주요 주제가 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군집은 노드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있어 응집성이 매우 낮으므로 사업이 제대로 이슈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문재인정부

1) 차이의 존중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시행된 문화다양성 사업을 보더라도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2017 문화예술정책백서』의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2017년에 정부는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 행사의 개최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무지개다리 사업을 확

24) 한건수, 앞의 글, 184면.

25)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서울: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234~235면.

대하는 등 기존 사업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²⁶⁾ 그러나 2017년에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정부 간 위원회 위원국이 됨과 동시에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18년에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 가운데 하나인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제시하면서 이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윤곽이 뚜렷해진다. ‘문화비전2030’에서는 이 의제의 첫 번째 대표과제로 ‘문화정책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을 들고 그 하위 과제로 ‘문화다양성 개념과 정책 위상 정립’(정책 범위 설정),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교육 실시), ‘문화정책성에 기반한 다양한 예술 지원’(다양성 예술 증진)을 제시하였는데, 이 과제들은 “나이, 종교, 장애, 젠더,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다양성 요소에 대한 법률상 범주를 검토”하고 “소수자를 사회적 차별·혐오 대상, 복지·시혜 대상, 치료의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보면서 정책 범위를 재정립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하였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차이와 공존에 기초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²⁷⁾으로 재정립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표 6〉 2018년 자료의 주요 주제어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
| 1 | 문화다양성 | 1729 | 35 | 서울 | 103 | 69 | 11월 | 68 |
| 2 | 문화 | 352 | 36 | 시민 | 99 | 70 | 인정 | 66 |
| 3 | 개최 | 305 | 37 | 공연 | 94 | 71 | 생각 | 64 |
| 4 | 존중 | 296 | 38 | 문화다양성주간 | 93 | 72 | 제공 | 64 |
| 5 | 행사 | 255 | 39 | 인권 | 93 | 73 | 동아시아 | 63 |
| 6 | 진행 | 253 | 40 | 실천 | 89 | 74 | 필요 | 63 |
| 7 | 확산 | 236 | 41 | 사업 | 89 | 75 | 의식 | 63 |

26)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예술정책백서』(서울: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103~128면.

27)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2018), 27면.

| | | | | | | | | |
|----|---------|-----|----|---------|----|-----|-----------|----|
| 8 | 가치 | 218 | 42 | 영화 | 89 | 76 | 유네스코 | 62 |
| 9 | 다양 | 208 | 43 | 보호 | 88 | 77 | 일환 | 62 |
| 10 | 세계 | 208 | 44 | 말 | 88 | 78 | 다문화가정 | 62 |
| 11 | 교육 | 206 | 45 | 추진 | 87 | 79 | 문화체육관광부 | 61 |
| 12 | 다양성 | 204 | 46 | 평화 | 85 | 80 | 발전 | 61 |
| 13 | 이해 | 192 | 47 | 문화교류 | 82 | 81 | 다문화교육 | 61 |
| 14 | 시 | 186 | 48 | 문화다양성교육 | 82 | 82 | 10월 | 61 |
| 15 | 사회 | 185 | 49 | 활동 | 81 | 83 | 동아시아문화도시 | 60 |
| 16 | 지역 | 183 | 50 | 전시 | 81 | 84 | 다문화축제 | 60 |
| 17 | 주제 | 171 | 51 | 부산 | 81 | 85 | 지원 | 59 |
| 18 | 차이 | 158 | 52 | 공모전 | 81 | 86 | 이야기 | 59 |
| 19 | 프로그램 | 136 | 53 | 일 | 80 | 87 | 국내 | 59 |
| 20 | 기자 | 135 | 54 | 문화예술 | 79 | 88 | 인류 | 59 |
| 21 | 무지개다리사업 | 135 | 55 | 시작 | 79 | 89 | 관심 | 58 |
| 22 | 2018년 | 133 | 56 | 한국 | 79 | 90 | 주최 | 58 |
| 23 | 날 | 129 | 57 | 이주민 | 77 | 91 | 전국 | 57 |
| 24 | 5월 | 127 | 58 | 확대 | 77 | 92 | 문화다양성축제 | 57 |
| 25 | 운영 | 122 | 59 | 융합 | 74 | 93 | 시간 | 57 |
| 26 | 증진 | 122 | 60 | 청소년 | 73 | 94 | 선정 | 57 |
| 27 | 다문화 | 121 | 61 | 관련 | 72 | 95 | 세계시민 | 56 |
| 28 | 체험 | 118 | 62 | 마련 | 72 | 96 | 대표 | 56 |
| 29 | 축제 | 115 | 63 | 모집 | 72 | 97 | 아이 | 55 |
| 30 | 학생 | 113 | 64 | 2018 | 71 | 98 | 예술 | 54 |
| 31 | 참여 | 112 | 65 | 실시 | 70 | 99 | 소개 | 53 |
| 32 | 사람 | 107 | 66 | 도시 | 70 | 100 | 종료문화다양성연극 | 53 |
| 33 | 다문화사회 | 107 | 67 | 정신 | 69 | | | |
| 34 | 대상 | 107 | 68 | 인식 | 69 | | | |

<표 6>은 2018년의 정제 자료로부터 추출한 10,002개의 주제어 가운데 의미가 없거나 불명확한 단어를 제거한 뒤 빈도순으로 추린 총 100개의 주제어 목록이다. 그 가운데 10위까지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개최’, ‘존중’, ‘행사’, ‘진행’, ‘가치’와 같은 새로운 단어가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최’, ‘행사’, ‘진행’은 2018년에 문화다양성 사업이 비교 대상인 2009년, 2014년에

비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음을 뜻하고, ‘존중’, ‘가치’는 이 해에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표 2>와 <표 4>에서 보이지 않던 ‘차이’라는 단어가 18위에 위치해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공존”하도록 함으로써 “갈등과 혐오에서 갈등과 다양성의 문화로”²⁸⁾ 가는 정책을 지향한 바, 이러한 지향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관련 단어로는 ‘무지개다리사업’(21위), ‘다문화’(27위), ‘다문화사회’(33위), ‘이주민’(57위), ‘다문화가정’(78위), ‘다문화교육’(81위), ‘다문화축제’(84위)가 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축제’는 새롭게 출현한 단어여서 다문화에 대한 접근이 보다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소통’은 목록에 출현하지 않아서 ‘이주민과 내국인의 교류’는 특별히 강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처럼 ‘스크린쿼터’라는 단어 없이 ‘영화’(42위)가 목록에 등장하여 문화다양성 담론에서 이 장르가 여전히 중요하나 순위가 많이 떨어져 언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다양성협약’ 역시 <표 4>와 마찬가지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이 협약이 확실히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법(률)’ 역시 목록에 없어 법률 제정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월’(24위), ‘문화다양성주간’(38위), ‘문화다양성교육’(48위)과 ‘문화다양성축제’(92위)가 새롭게 등장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인 소수문화 계층으로 ‘청소년’(60위) 외에 다른 계층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서 다양한 소수 계층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것은 ‘동아시아문화도시’(83위) 사업이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이 사업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의 의

28) 같은 글, 6면.

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감상'의 실천을 위해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한 사업인데, 삼국의 문화다양성 존중이 그 취지이기 때문에 '문화교류'(47위), '융합'(59위)과 함께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2017 문화예술정책백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업은 '국제문화정책'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²⁹⁾ 문화다양성 담론의 고유 주제로 보기는 어렵다.

〈표 7〉 2018년 자료의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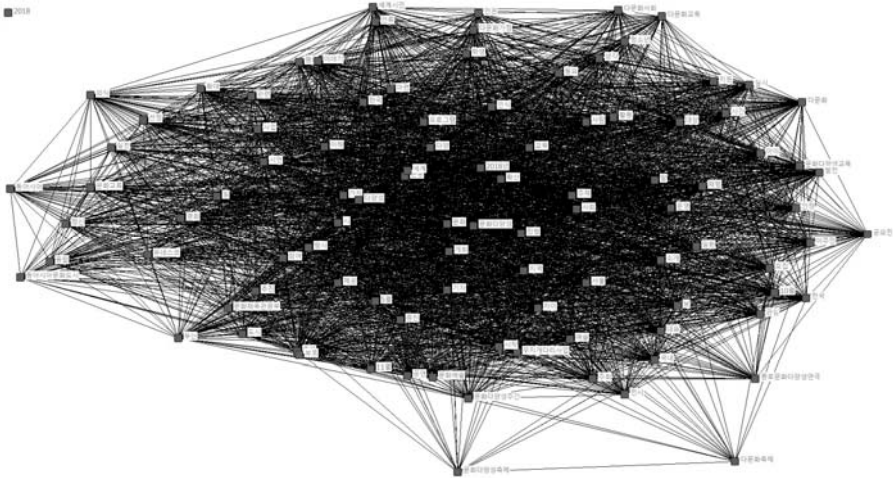
| 순위 | 단어 | 연결 중심성 | 순위 | 단어 | 연결 중심성 | 순위 | 단어 | 연결 중심성 |
|----|-------|--------|----|---------|--------|----|---------|--------|
| 1 | 문화다양성 | 0.098 | 35 | 시작 | 0.0105 | 69 | 발전 | 0.0071 |
| 2 | 문화 | 0.032 | 36 | 일 | 0.0105 | 70 | 차별 | 0.0071 |
| 3 | 진행 | 0.0295 | 37 | 무지개다리사업 | 0.0103 | 71 | 2018 | 0.0071 |
| 4 | 개최 | 0.0287 | 38 | 말 | 0.0102 | 72 | 대표 | 0.007 |
| 5 | 행사 | 0.0205 | 39 | 날 | 0.0097 | 73 | 내용 | 0.0069 |
| 6 | 세계 | 0.0196 | 40 | 모집 | 0.0095 | 74 | 답변 | 0.0068 |
| 7 | 사회 | 0.0192 | 41 | 관련 | 0.0095 | 75 | 선정 | 0.0067 |
| 8 | 지역 | 0.019 | 42 | 이야기 | 0.0095 | 76 | 문화체육관광부 | 0.0067 |
| 9 | 기자 | 0.019 | 43 | 체험 | 0.0093 | 77 | 교수 | 0.0067 |
| 10 | 다양성 | 0.0187 | 44 | 필요 | 0.0092 | 78 | 발표 | 0.0067 |
| 11 | 교육 | 0.0173 | 45 | 문화다양성교육 | 0.0092 | 79 | 나라 | 0.0067 |
| 12 | 시 | 0.0172 | 46 | 생각 | 0.009 | 80 | 예술 | 0.0066 |
| 13 | 주제 | 0.0159 | 47 | 시민 | 0.0088 | 81 | 부산 | 0.0066 |
| 14 | 운영 | 0.0149 | 48 | 한국 | 0.0087 | 82 | 제공 | 0.0065 |
| 15 | 다양 | 0.0149 | 49 | 공모전 | 0.0087 | 83 | 삶 | 0.0065 |
| 16 | 축제 | 0.0148 | 50 | 지원 | 0.0087 | 84 | 주최 | 0.0064 |
| 17 | 존중 | 0.0147 | 51 | 문화예술 | 0.0086 | 85 | 확대 | 0.0064 |
| 18 | 확산 | 0.0144 | 52 | 추진 | 0.0085 | 86 | 중심 | 0.0064 |
| 19 | 사람 | 0.014 | 53 | 소개 | 0.0085 | 87 | 문화다양성주간 | 0.0064 |
| 20 | 프로그램 | 0.014 | 54 | 유네스코 | 0.0084 | 88 | 인권 | 0.0063 |

29)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예술정책백서』(서울: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226면.

| | | | | | | | | |
|----|--------------|--------|----|------------|--------|-----|--------------|--------|
| 21 | 이해 | 0.0136 | 55 | 도시 | 0.0082 | 89 | 공모 | 0.0062 |
| 22 | 2018년 | 0.0134 | 56 | 이주민 | 0.0081 | 90 | 다문화가정 | 0.0062 |
| 23 | 영화 | 0.0125 | 57 | 평화 | 0.008 | 91 | 환경 | 0.0062 |
| 24 | 참여 | 0.0125 | 58 | 실시 | 0.0079 | 92 | 인정 | 0.0061 |
| 25 | 가치 | 0.0125 | 59 | 증진 | 0.0078 | 93 | 준비 | 0.0061 |
| 26 | 차이 | 0.0122 | 60 | 오늘 | 0.0076 | 94 | 교류 | 0.006 |
| 27 | 5월 | 0.012 | 61 | 사진 | 0.0076 | 95 | 다문화교육 | 0.006 |
| 28 | 학생 | 0.0119 | 62 | 아이 | 0.0075 | 96 | 전국 | 0.006 |
| 29 | 다문화사회 | 0.0117 | 63 | 마련 | 0.0075 | 97 | 국가 | 0.006 |
| 30 | 활동 | 0.0112 | 64 | 문제 | 0.0075 | 98 | 책 | 0.0058 |
| 31 | 공연 | 0.0111 | 65 | 시간 | 0.0074 | 99 | 청소년 | 0.0058 |
| 32 | 사업 | 0.0109 | 66 | 전시 | 0.0073 | 100 | 정책 | 0.0058 |
| 33 | 서울 | 0.0107 | 67 | 11월 | 0.0073 | | | |
| 34 | 대상 | 0.0106 | 68 | 10월 | 0.007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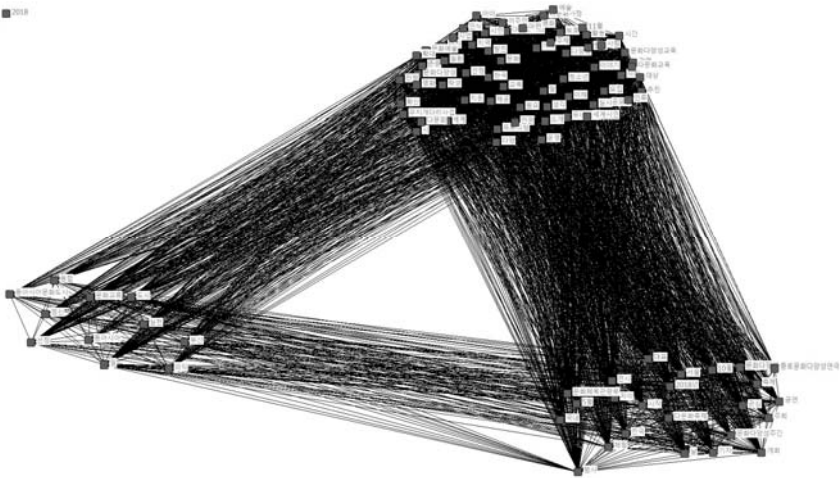
<표 7>을 <표 6>과 비교해보면 ‘진행’, ‘개최’, ‘행사’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지나치게 사업 중심으로 인식된 것일 수 있으므로, 비록 ‘차이’(26위)가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더라도 정책의 취지나 의미에 대한 정책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결중심성의 측면에서는 다문화 관련 단어들의 순위가 하락하고 ‘영화’의 순위는 상승하여 문화다양성 담론에서 실제 단어의 중심적 위치는 서로 반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영화는 2009년 15위, 2014년 15위, 2018년 23위를 차지하여 언급은 계속 줄어들더라도 꾸준히 문화다양성 담론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협약’과 ‘문화다양성 법(률)’은 <표 5>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7>에서도 출현하지 않아 더 이상 주요 주제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소수문화 계층을 가리키는 단어들도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있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문화다양성 담론의 통합



〈그림 5〉 2018년 자료의 연결망 분석 결과

2018년 자료의 연결망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 5>를 보면 2014년처럼 ‘문화다양성’과 가장 인접한 단어가 ‘문화’이기는 하나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단어들이 ‘개최’와 ‘진행’이어서 문재인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지나치게 사업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주제별 위치를 살펴보면 「문화다양성 협약」과 세계문화유산의 주제는 <그림 5>의 연결망에서 사라졌고, 영화의 주제는 중심에서 더 멀어졌으며, 다문화와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다양성 사업의 주제는 외곽에 위치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제가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다른 정책의 영역이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사업이 중심에서 먼 것은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사업이 아직도 문화다양성 정책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약하며, 문화다양성 사업이 문화다양성의 취지와 의미와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2018년 자료의 CONCOR 분석 결과

2018년 자료의 CONCOR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 6>에서처럼 3개의 중심 군집을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2>와 <그림 4>에서 볼 수 있었던 주변 군집들이 없는 것은 담론이 3개로 선명하게 나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크기가 큰 상단의 중심 군집에는 영화, 다문화, 문화다양성교육 등 매우 다양한 하위 주제에 속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화다양성’ 군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그동안 분산되었던 문화다양성 담론이 하나의 큰 틀 안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단 왼쪽의 중심 군집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과 관련된 단어들이 모여 있어 ‘동아시아문화도시’ 군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업이 ‘국제문화정책’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문화다양성 담론 고유의 주제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단 오른쪽의 중심 군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주간’에 열리는 다양한 사업들과 관련된 단어들이 모여 있어 ‘문화다양성주간’ 군집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이 군집이 상단의 군집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된 주제 군을 형성한 것은 다른 하위 주제들과 동떨어져 언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그것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이 정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각 정권 2년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텍스트포카유씨아이넷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데 있다. 2009년 이명박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다문화 정책을 답습한 것인데, 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고 영화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서 정책과 인식에 거리가 있고 다양한 주제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2014년 박근혜정부는 문화다양성 정책에 있어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주민과 내국인의 교류’, ‘소수문화 계층으로 정책 대상 확대’와 같은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사회에서는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았지만 교류 필요성을 포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고 주제도 그것으로 집중되어 이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문재인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문화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하도록 하는 방향을 지향하는데, 사회에서 이러한 방향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어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소수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문화다양성이 사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정권에 따라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발전 단계도 「문화다양성 협약」의 체결부터 이명박정부 말까지인 2005년~2012년의 1단계,

박근혜정부에 해당되는 2013~2016년의 2단계, 문재인정부에 해당되는 2017년~현재의 3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문화다양성 담론에서 영화와 다문화의 주제가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스크린쿼터 논쟁이 사라지면서, 다문화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이 다양한 소수문화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언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꾸준히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둘은 물론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주요 주제임에 틀림 없지만 문화다양성이 계속해서 이 둘로 축소되어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 이해를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다문화 정책으로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소수문화 계층으로 정책 대상 확대가 이처럼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정책 방향이다. 셋째, 문화다양성 정책이 사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의 취지나 의미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다양성이 사업이나 행사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문재인정부 들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넷째, 이러한 사업·행사나 관련된 주제가 언급될 때 문화다양성과의 연결이 느슨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들이 서로 독립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밀착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도와 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곽기영. 『소셜네트워크분석』. 제2판, 서울 : 청담, 2017.
-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 김면. 『문화다양성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 2018.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2007.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2005.
- 문화관광부, 『2005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2006.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_____,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_____,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_____,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_____,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_____,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_____,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_____, 『2015 문화예술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_____, 『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_____, 『2017 문화예술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2018.

오익근·이태숙·전채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9(10). 2015, 107~126면.

정근하,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 연구』. 서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차민경, 「국내 언론에 나타난 '예술경영' 관련 이슈의 의미연결망 분석 :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일간지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9(2). 2015, 168~200면.

최윤정·권상희,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1). 2014, 241~286면.

한건수,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2015, 163~199면.

Scott, John. *Social Network Analysis : A Handbook*. second edition, London : SAGE, 2000.

Wasserman, Stanley and Faust, Katherine. *Social Network Analysis :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더아이엠씨, 「텍스톰」, <http://www.textom.co.kr/>(검색일: 2019.6.12).

Analytic Technologies, *Analytic Technologies*, <http://www.analytictech.com/> (accessed June 12,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Awarenes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Noh, Shi-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ultural diversity policy of Korea changes according to the regime through the literature analysis, focusing on the second year of each regime, and to study how the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varies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 by collecting and analyzing related data using Textom and UCINET. In 2009,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on cultural diversity followed the multicultural policy initiat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fact that in the society there was more interest in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the film, shows that there is distance from policy and awareness, and various topics coexist. In 2014,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ursued changes such as 'exchanges of migrants and locals' and 'expansion of policy targets to minority cultural groups' in order to strengthen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cultural diversity policy. In society, the recognition of the expansion of the target was low, but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including the necessity of exchange was very high, and the theme was concentrated on it, so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multicultural policy in this government has become serious. In 2018,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toward cultural diversity is aimed at recognizing minority cultures and making diverse cultures respect and coexist with one another. This direction is well recognized in society, so it can be said that the policy is effectively communicat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it because the awareness of minority culture is

* Graduate School of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till low and cultural diversity is understood mainly in project.

Key words: cultural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policy,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social network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필자소개>

이름: 노시훈

소속: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전자우편: lagedor@hanmail.net

논문투고일: 2020년 1월 15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25일